

올해 부활절 예배 드라마, “평화의 왕”

- 참여자의 폭 넓은 음악극 형식

예수님의 삶 통해 평화 되새겨

올해 부활절은 4월 20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부활절 예배드라마가 준비되고 있다. 이번 부활절 예배드라마는 ‘평화’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권력기관 중 하나였던 산헤드린 공회와 예수님, 그리고 영혼의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평화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조명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서 참평화를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평화의 도구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기획과 연출을 맡은 문규호 전도사의 말이다.

교회와 학교의 연합된 모습 펼쳐

지난 2012년 주님의교회가 보여

준 부활절 예배드라마는 절기를 되새기는 좋은 사례로 CBS 뉴스와 목회와 신학 2012년 5월호를 통해 보도되는 등 크게 주목을 받았다.

2013년에는 세대통합예배에 중점을 두고, 전 교인 온 세대가 참여했을 뿐 아니라, 이웃을 초청, 오후 5시에 특별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3년차인 올해는 기존 부활절 예배드라마의 예배 정신 바탕위에 ‘연합함’이라는 의미에 더욱 비중을 두고 교회와 학교와의 연합된 모습으로 특별예배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 10장으로 구성, 평화의 왕 행적 좇아

이번 예배드라마는 아리마대 요셉의 눈을 통해 바라본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용서를 직접 체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프롤로그는 ‘가인과 아벨’, 제1장 ‘율법’, 제2장 ‘사마리아 여인’, 제3장 ‘예수님과 니고데모’, 제4장 ‘내가 낮고 싶으나’, 제5장 ‘율법학자들의 논쟁’, 제6장 ‘향유를 부은 여인’, 제7장 ‘유다의 배반’, 제8장 ‘겻세마네’, 제9장 ‘왕의 장례’, 제10장 ‘평화의 왕의 부활’로 구성되어 있다.

음악극의 형식 취하고 나눔의 장 마련

올해의 특징은 우선 음악극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배우들이 부르는 노래, 찬양대가 부르는 노

래, 회중과 모두 함께 부르는 노래들로 구성되어 음악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했고, 몇몇 곡들은 폐제 찬양으로 구성되었다.

전년과는 달리 영상을 통해 무대 배경을 삼아 비용도 절감하면서 영상과 조명의 효과를 살렸고, 의상도 상징성을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청년부와 아동부, 정신여중고 합창단이 참여하여 소통과 연합의 의미를 살렸다.

또한 “갈등과 평화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눔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함글함글



목련 꽃 그늘 아래서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 든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어린 무지개 계절아

4월을 며칠 앞두고, 주님의교회 성전 앞을 밝힌 백목련에 눈이 부시다. 고난 뒤 맛을 부활의 빛처럼, 한겨울 찬 바람 견디고 피워낸 꽃잎 그래서 더 곱다.

2014년 특집 I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 함글함글에서는 2014년 연간특집으로, 각자의 삶에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려 애쓰고 고민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다양한 형식(간증, 수필, 논설, 독후감, 여행기, 서간문 등)으로 hamletter@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신겠습니다. **함글함글**

‘평화의 도구’는 실무책임자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이사야 53:5)

저는 2014년 서기장로의 중책을 맡게 된 조원호 장로입니다. 임무를 맡은 지 벌써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늦게나마 함글함글을 통해 인사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013년 말 뜻하지 않았던 큰 사건을 접하면서 모든 성도들과 시무장로들은 압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교회를 사랑하셔서 시무장로님을 도구삼아 큰 금

액을 은혜 헌금으로 보전케 하셔서 위기를 모면하게 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교회는 다시 태어났다는 자세로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기위해 시무장로님들의 결의를 보였으며 또 더 불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을 시작하면서 은퇴 장로님을 초청하여 창립의 정신을 다시 생각하였으며 3회에 걸쳐 시무장로간담회를 통해 교회 발전을 위해 토론하였고 매주 목요일 교직원과 부목사님들이 모여 경건회를 열고, 기도와 참회를 통해 모든 교회 행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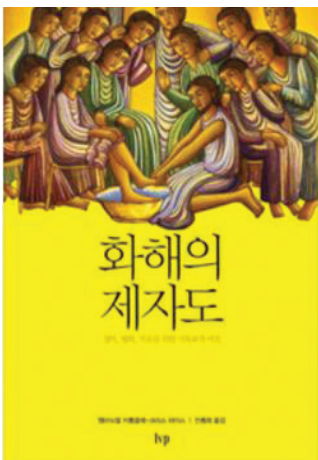
그 사건 이후 교회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감사 제도를 강화하여 담당 장로와 전문 안수집사님들을 보완하여 회계지도와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느 한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합심하여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 재정의 투명성에 대하여는 시무장로 간담회를 통해 시안을 잡았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안식년을 마치시고 당회를 소집하여 당회를 통해 그 결과를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드

리겠습니다.

올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의 표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우선 우리 시무장로들이 앞장서 새 신자를 일일이 찾아가 친교를 할 것이며 각 부서에서 헌신하시는 교우들의 노고와 교회 발전을 위해 제안하여 주는 사항을 교회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부교역자님들도 더 많은 심방으로 교우들의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안일하게 지내던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서 다시 한 번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하시고 재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조원호** 서기장로

평화의 삶 위한 이 한권의 책

<화해의 제자도>



에마누엘 카통골레·크리스 라이스 공저, 안중희 옮김, IVP, 2008

우간다 출신의 신학자인 에마누엘 카통골레 신부와 미국의 평화운동가 크리스 라이스 목사는 듀크대학교 화해센터의 공동책임자입니다. 카통골레 신부와 라이스 목사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화해를 이루기 위해 일한 수년간의 공동의 여정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두 분은 이 책에서 오늘의 깨어진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화해, 정의, 평화, 치유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깨어진 세상을 향한 탄식의 영성을

배우며,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참된 희망을 발견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평화 없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함께 공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김정형 목사

> ‘평화의 삶 위한 이 한권의 책’은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음에 도움이 될 좋은 책들을 선정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추천 도서도 환영합니다. **함글함글**

섬기는 손 3



파 17단, 무 30개, 양파 20킬로, 멸치 15박스, 북어머리 한 소쿠리, 마른고추, 후추, 다시마에 다듬고 삶고 써는 손길을 더해서 주일 명품 국수 3000 그릇이 준비됩니다. 이 손길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실 분은 이원철 안수집사(010-2679-2007)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함글함글**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57

使徒行傳 (사도행전) 意味(의미)

(사도행전 Acts of the Apostles)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안에서 행한 나의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고전 9:1~2)

베드로와 바울로 대표되는 초대교회의 활동에 관한 내용이며 성령의 인도로 복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전파되는 역사이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로써 특별한 사명과 메시지를 위임받아 멀리 파견된 자이니 즉 예수께 택함 받은 12제자이다.

文字的(문자적)意味(의미)

★使(하여금 사. 부릴 사): “백성”을 의미하는 人(사람 인)의 변형

체 亻(사람인 변)에 “관리”를 뜻하는 吏(벼슬아치 리)를 결합하여 “백성들은 벼슬아치로 하여금 부림을 당하는 존재이다”라는 문자가 되었다.

★徒(무리 도): “걷다. 많은 사람”의 뜻이 있는 彳(자축거릴 척)과 走(달릴 주)가 합쳐 “인생의 길을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하는 것이 사람의 무리이다”라는 의미를 만들었다.

★行(다닐 행. 행할 행): “원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彳(자축거릴

척)과 “오른발의 움직임”을 뜻하는 彳(겨우 디딜 축)으로 구성하여 “원발과 오른발을 번갈아 움직이며 다닌다”라는 문자가 만들어졌다.

★傳(전할 전): 만물의 靈長(영장) 人(사람 인)의 변형체 亻(사람인 변)과 專(오로지 전)의 합자로써 “사람만이 후세에 기록을 남겨 오로지 전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함글함글

베트남 선교 사역 보고

주님의교회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베트남을 동남아 지역 중점 해외 선교 국가로 정하는 한편, 겨자씨 선교헌금을 통해 베트남 선교를 지원해오고 있다.

베트남은 아직 사회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기독교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님의교회에서도 베트남 선교를 위해 선교비 지원 외에도 매년 비전트립을 통해 현지 주민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처음 베트남 선교를 위해 겨자씨 선교 헌금을 모으기 시작한 후, 베트남의 남부기독교 총연합회(남부총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베트남의 농촌 중 최빈촌과 산간 오지 교회의 목회자들을 지원해왔다.

베트남 교단은 목회자 최저 생계비 기준을 월 200달러로 잡고 있으나 이러한 지역의 경우 100달러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교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자립을 하게 되면 지원을 중단하며 새로운 대상자가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들

은 매년 및 연중 변경되는데 대략 30여개 교회의 30여 명의 목사, 전도사 및 강도사에게 형편에 따라 25불 ~ 100불로 차등하여 지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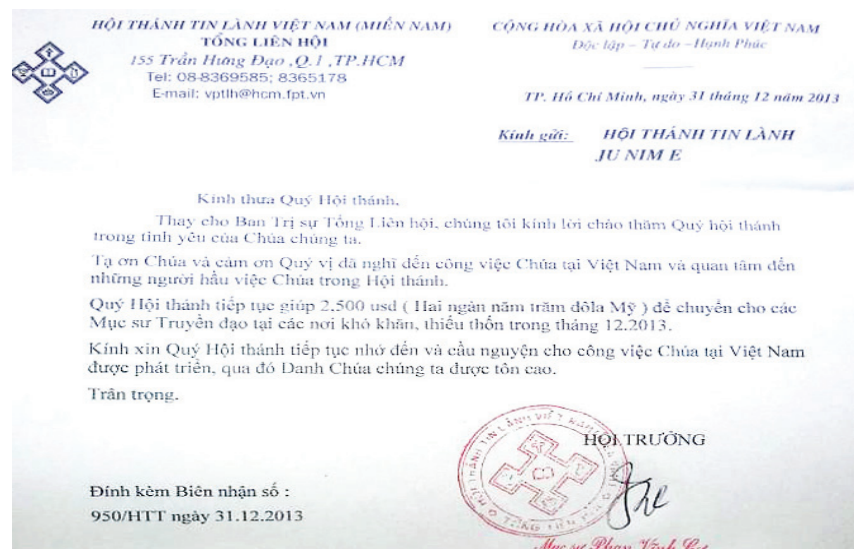
2011년~2012년에는 주님의교회 박원호 담임목사가 후원교회 수곳을 직접 방문한 바 있고, 2013년에는 비전트립 팀이 이 일을 담당하는 베트남 남부총회 재정 담당 목사를 예방하여 지원금의 전달현황에 대하여 직접 청취하고 또한 후원교회를 두 곳 방문한 바 있다. 2012년까지는 월 2,000불을 후원하였고 2013년부터는 월 2,500불을 후원하고 있다.

겨자씨 선교 헌금을 시작할 당시에는 겨자씨와 개 교회를 직접 연결하여 좀더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하는 구상도 있었지만, 실제로 지원 대상자가 계속 변경되는 상황임을 고려, 그 시행 시기는 보류하는 한편, 해외선교분과에서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김용규 집사/해외선교 동남아팀장

베트남 선교헌금 연도별 현황

	수입 (헌금액)	지출 (송금)
2010	16,037,000	4,616,000
2011	36,650,600	28,982,363
2012	41,539,000	27,504,268
2013	36,546,360	33,165,837
2014.3.16	3,344,000	8,033,679
잔액		31,814,813



지난 연말, 베트남 복음성회 남부총회 총회장 판 빈 고 목사가 보내온 서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귀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귀 교회께서는 베트남에서의 주님의 일과 주의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관심가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귀 교회께서는 변함 없이 어렵고 힘든 지역에 거주하는 목사, 전도사들에게 전달하도록 2013년 12월에도 2,500불을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베트남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흥왕하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더욱 영광받으시도록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써여져 있다.

교회용어, 이것만은 고치자 > 예배, 예식 용어 편 4

주기도문(사도신경) 외우겠습니다(X): 주님 가르쳐 주신대로 기도하겠습니다.(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다같이 주기도문 외우겠습니다”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예배시에 성도들은 결코 주기도문을 단순히 외는(외우는) 것, 즉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디 한 마디 뜻을 바로 새기면서 음송(吟誦)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른 표현은 “다같이 주님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다같이 사도신경 외우겠습니다”라는 표현도 그와 같은 경우로서 옳지 않다. 즉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제사, 제단, 제물(X): 예배, 성단, 예물(○)

‘구약의 제사장들은 소나 양을 잡아 단 위에 올리고 불살랐다. 이것이 곧 레위기의 제사요, 모세의 제단이며, 죽임을 당한 소나 양들이 희생의 제물이었다. 이 제사는 마침내 모든 제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되었고, 신약시대에 들어 예배로 내용과 형식이 변화되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금도 예배를 제사의 의미로 이해하며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단에 나와서, 작은 제물을 바칩니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사는 ‘예배’로, 제단은 ‘성단’으로, 제물은 ‘예물’로 바꾸어야 한다. 한편, 제단을 ‘강단’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으나 이것은 성례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교만 이루어지는 단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므로 ‘성단’이라 함이 적절하다.

영시 예배, 자정 예배(X): 송구영신예배(○)

예배가 시작되는 시각을 예배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낮 11시 예배, 밤 7시에배가 예배의 이름이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일을 가리켜 ‘송구영신’, 또는 ‘송영’이라 한다. 이 의미가 예배의 성격 및 내용과 일치하므로 ‘송구영신예배’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

기도로 폐회합니다.(X):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배가 끝날 즈음해서 예배 인도자가 이제 “○○○ 목사님 축도로 폐회합니다”, “○○○ 장로님 기도로 폐회합니다”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회 낮 예배는 물론, 새벽기도회나 수요기도회, 금요 심야기도회 등도 비록 우리가 관례를 따라 ○○회라고는 하지만 예배의 일종이므로 이 때에도 “○○○의 기도로 폐회합니다”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 / 함줄함줄 정리

청년부 예수친구사역 체계적으로 진행

연간 교육훈련 과정 확정 및 교재 <아하, 그 제자!> 펴내

2014년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 예수친구 사역은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체계를 마련해 가고 있다. 교육 과정을 전체과정과 선택과정으로 나누어 전체 과정은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과정으로 예배설교와 겨자씨 성경공부

로 진행된다. 현재 청년예배에서 예수친구의 개념을 잡기 위해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신약의 인물들 시리즈 강해말씀을 나누고 있으며, 4-6월 겨자씨 성경공부 교재도 같은 주제로 제작될 예정이다. 선택과정은 1단계

F.B.S(Faith basic school)로 신앙의 기초를 다지며, F.B.S 수료자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2단계로는 LETS(Leadership Education & Training)으로 겨자씨 리더가 되는 훈련 과정으로 이수 후에는 겨자씨 리더로 섬길 수 있는 특



권이 주어진다. 3단계는 Date school 오.월.애로 청년 그리스도인다운 이성 교재를 배우는 과정이다. 4단계는 선교학교를 이수한 후 국내선교와 해외선교 사역을 감당함으로 신앙의 삶의 반경을 넓혀가도록 할 예정이다. 5단계는 밖으로 향했던 성장의 발돋움을 내적으로 공고하게 하기 위한 말씀학교와 기도학교가

준비되어 있다. 2014년 청년예수친구사역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김삼열 전도사



	전체과정	선택과정	3-4월 예배설교주제 : 예수친구
1단계	예배설교말씀(주제/강해)	F.B.S(Faith basic school)	예수친구(1) 마리아
2단계	겨자씨 성경공부	LETS(Leadership Education & Training)	예수친구(2) 세례요한
3단계	매월말씀새벽기도회	Date School 오.월.애	예수친구(3) 사마리아 여인
4단계	동계/하계 수련회	선교학교	예수친구(4) 38년된 병자
5단계	국내/해외 선교	Bible code	예수친구(5) 베드로
6단계	절기별 영성훈련	기도학교	예수친구(6) 바울

부서장 및 회계 담당자 교육

지난 3월9일 재정위원회주관으로 부서장 및 회계담당자 교육이 진행되었다.

재정위원회의 간단한 소개로 시작된 교육에서 경리부장 지호선 안수집사는 교회회계 관련 성도는 선한 청지기로서 정직, 성실, 공정하게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정위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귀한 헌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당회가 결의하고 공동의회가 승인한 예산안에 따라 바르게 집행하는데 있으며 목적에 합치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면서 균형 있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지향함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박중순 재정장로는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재정위원회의 개선된 업무절차를 설명하였다. 현재 지출결의서에서 승인된 경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인터넷 이체 거래를 하는데, 재정간사가 입력을 하고 재정장

로가 온라인 상으로 승인을 함으로서 이체 거래가 완성되는데, 재정간사와 재정장로가 각각 전용 공인인증서와 OTP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이 개입할 수 없으며 누구도 혼자서는 이체 거래를 완성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리고 이체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디모데회계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업로드하는 간단한 작업으로 일괄 이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어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과 부서장이나 회계담당자가 실무에서 알아야 하는 절차와 원칙을 요약 강조했다.

이와 같은 재정위의 교육 후 감사위원회 신정웅 장로의 감사 방침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 이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교회재정을 안전하게 그리고 정직하고 투명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다짐하면서 교육을 마쳤다.

함글함글

회계 처리 원칙과 절차

1.예산신청기간 : 집행된 경비는 당해 년도 말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전년도 집행 예산

을 다음 해로 이월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집행된 예산은 2주 이내에 정산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증빙서류의 첨부 : 모든 예산은 지출시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부서별 장부의 비치 : 각 부서는 자체적으로 항목별로 예산을 관리하는 장부를 기록 유지하도록 한다(항목별 예산, 사용금액, 잔액 등 관리)

4.계좌 송금 : 개인이나 단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재정위에서 지급상대인에게 직접 계좌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5.가지급금 : 가지급금은 불가피한 경우 꼭 필요한 금액만 신청한다.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되, 행사 완료 후 2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6.식대 : 가능한 한 김밥 등을 이용하되, 1인당 5-6천원 이내, 원칙적으로 1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식대의 영수증에 ○○○○의 ○명이라고 표시하고 지출결의서에도 날자, 장소, 목적, 식사인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7.비품의 구입 : 30만 원 이상의 비품의 구입은 적정가 구매 및 비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회 사무국에 그 구입을 의뢰한다.

8.지출결의서 : 지출결의서는 회계담당자 작성(예산 항목 등 확인 후) -부서장 확인 및 서명 교회사무실 위원회별 보관함 담당장로결재-경리부장확인 재정장로 승인-디모데회계시스템 입력 인터넷뱅킹으로 목요일에 입금되는 식으로 처리된다. 지출결의서에는 위원회명, 부서명, 계정과목, 보조항목, 금액, 작성자성서장 이름 및 날인, 담당장로의 결재 그리고 제출일자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9.인증되는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체크카드 영수증, 간이영수증(3만원 이하)가 있으며, 인증불가 영수증으로 거래명세서, 고액의 간이 영수증, 급조된 영수증 그리고 영수증사본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김밥 등의 경우처럼 많은 경우에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나 공급가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런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10.기타 :교회 예산으로 부서 내 경조비 및 선물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로템나무

십자가의 본질

제330호 <함글함글>의 신임 교역자 소감 난에 실린 청년부 김요한 전도사님의 “겸손과 열정으로”라는 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3포세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소망을 잘 증거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이 짧막한 호소는 기성세대를 향하여 쏟아내는 하나의 절실한 절규로 들려왔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는 분에 넘칠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복음이 충만한 기독교 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의 역사이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깥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로움과 함께 복음이 충만한 국가, 대한민국을 경이로운 눈으로 우러러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부 세계의 칭송과는 달리, 근년에 들어, 우리 한국 교회가 적지 않은 도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계가 세상 속에서의 신뢰를 더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가 교회라는 온실 속에 머물고 있으며

교회는 제왕적 관리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전의 한 가운데에 “마몬”이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하면, 차라리 눈을 감고 외면하고 싶은 심경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어른들 세대가 하나님의 청순한 자녀, 우리들의 청소년들을 위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3포세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예수그리스도의 소망을 잘 증거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의 내용은 어째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여겨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존 스토티). 이렇듯 “십자가”는 자기중심성의 포기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이러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쌓아가는 긴 여정이라 믿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본질적 의미에 얼마나 순종하며 끊임없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예수님께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기성세대에 의한 이러한 신앙생활의 실천적 본보기만이 김요한 전도사님의 절실한 호소에 부응하는 길이며 우리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좋은 단서(端緒)가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지난해 연말에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도 정의롭지 못한 일로 시험에 든 때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관리로 인한 금전적인 사고였습니다. 몇몇 담당 장로님들에 의한 희생적인 금전적 보충을 통하여 문제의 금전도용 사고는 그 처리가 잘 마무리 되었다고 공표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 보충만으로 이 시험이 끝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긴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돈”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겉연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전관리의 문제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입니다. 십일조와 봉헌으로 조성되는 교회의 자금은 복음전파를 위한 선교활동사업에, 교회공동체의 조직 운영비용에, 목회 성직자님들을 위한 사례비등의 성스러운 용처에 쓰여야만 할 하나님에 속한 귀중한 돈입니다. 그

러나 이 돈의 관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기독교인의 재정 원칙”크래그힐, 얼 핏츠 공저 인용). 세상적인 방법이란 ‘통제와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재정의 기법과 원칙이 철저하게 고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극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에 충분히 충실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다고 믿습니다. 금번의 금전사고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내려 주신 하나의 시련으로서 이를 통해 계시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알아차릴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혜의 원천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롯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버리지 않고는 진정한 지혜를 구하지 못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이 김요한 전도사님의 겸손과 열정의 마음속 바람이 아니었을까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중심성의 포기라는 십자가의 함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해 질 때, 3포세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그나마 고개를 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남홍** 은퇴안수집사

말씀따라 가로세로 _ 예레미야 편

* 두 구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를 넣어주세요

1.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렘 2:19)

2.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끝자가 없으리라 (렘 4:3-4)

3.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

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와 ○○○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렘 17:9-10)

4.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라와 ○○○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렘 29:11-13)

5.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여 기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렘 31:20)

6.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 일을 내게 보이리라 (렘33:2-3)

7. 바위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렘 49:16)

도서사역팀 초등학생 독후감 쓰기대회



도서사역팀에서는 이웃 초등학생들에게 좋은 책 읽기와 도서실 이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독후감 쓰기 대회를 개최하고, 응모한 작품들을 심사하여 3월 23일 5층 도서실에서 입상한 학생들을 포상했다. 1등은 탑산초등학교 3학년 한다희, 2등은 영동초등학교 3학년 이서강, 버들초등학교 3학년 이다경이 받았으며, 장려상은 아주초등학교 1학년 조연우 학생이 받았다. 도서사역팀에서는 매년 독후감 쓰기 대회를 가져 이웃의 어린이들에게 책과 가까이 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함글함글

주님의교회 초등학생 독후감대회 1등

씩씩한 명자

〈처음 가진 열쇠〉를 읽고

한다희
탑산초등학교 3학년

이 책의 주인공인 명자는 반장 도영이와 사이가 매우 안 좋다. 그래서 매일 말다툼, 몸싸움을 쉴 새 없이 한다. 그렇게 좌충우돌 학교생활을 보내다가 육상대회가 있어서 명자의 반도 대표를 선발해야 됐다.

하기 싫었던 명자를 골탕 먹이려는 도영이가 추천한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호랑이 코치와 맹연습을 시작한다. 집안일 하라, 육상 하라, 또 집안일을 연습 때문에 못한 날은, 엄마에게 혼나기 일쑤였다. 어느 날 또 늦어서 집에 막가려고 뛰어가고 있는데 1학년 교실이 나란히 있는 복도를 가다보니 전에 육상 때문에 수돗가에 가서 세수를 하다 본 선생님이 1학년3반에 계셨다. 그런데 게시판이나 청소도구함이 있어야 할 뒤에 큰 책상이 있는 것이다.

거기가 도서실이란 것을 알게 된 명자는 매일 그 교실에서 책을 읽게 되었다. 그래서 육상도 그만두고 매일 가장 늦게 가는 명자는 그 교실의 열쇠까지 맡게 되었다.

사이가 안 좋은 도영이에게 자랑했더니 도영이가 “오 제법인데, 교실열쇠까지 맡고 말이야”, 이 말을 듣고 명자는 도영이와 더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난 이 책을 읽고서 가난에도 굴하지 않고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노력하는 명자의 모습이 부럽고 본받고 싶다. 대단하다 명자!

교회 단신

교사 힐링데이

“주님의교육목회원 교사 수련회”가 2014년 3월 9일 주일 3시 중예배실에서 350여명이 넘는 교사들이 모여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간단하게 찬양과 율동으로 치친 몸과 마음을 풀고 어깨를 안마해주며 서로를 위로하고 쉽지 않은 교육부 봉사를 하며 지친 마음들 김한중 장로의 기도와 손천숙 장로의 격려, 그리고 김정형 목사의 말씀에 위로를 받았다.

2부에는 마음의 평안과 쉼을 주는 송정미 찬양사역자의 아름다운 찬양과 눈물어린 간증으로 모든 교사들을 울린 고등부 한지윤 학생, 교사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게 하는 서호경 교사의 나눔에 감동을 느끼며 나와 나에게 맡겨진 생명을 위한 뜨거운 기도회를 마친 후 준비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아기정원 입학식

3월 27일(목) 1층 싹트네 실에서 2014년 13기 아기정원 입학식이 열렸다. 30여명의 유아들과 보호자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이 주신 나의 멋진 몸”이라는 주제로 봄 학기를 시작하였다. 손천숙 장로의 기도와 김정형 목사의 말씀과 교사들의 축하공연과 주조챔버의 연주로 아기정원 입학식을 축하했다.

아기정원은 유아들과 엄마들이 함께 참여하여 말씀을 배우고 활동하는 주중 신앙교육 프로그램이다. 유아들은 말씀과 연계된 놀이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곳이다. 엄마들은 말씀 속에서 부모의 역할을 배우며, 자신을 돌아보고, 자녀를 이해하며 사랑의 관계를 배워가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2주간 동안 교육이 진행된다. 생후 16개월~40개월 유아와 엄마(보호자)가 함께 참석을 하며 자유놀이, 찬양과 예배, 체조, 다양한 활동, 유리드믹스, 체험 및 야외학습, 세미나 1회(엄마정원)가 진행되고, 6월 14일(토) 수료식에는 아빠와 함께 하는 드림잔치로 드려진다.



교회사역일정

- | | |
|------------------------|-----------------------------|
| 4. 4(금): 금요기도회 | 4. 14~19(월~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
| 4. 7(월): 정기당회 | 4. 18(금): 성금요일예배 |
| 4. 16(수): 1/4분기 제직회 | 4. 20(주일): 부활주일, 부활절 예배드라마 |
| 4. 13(주일): 종려주일, 세례입교식 | |